

### 영국사터에 지어진 도봉서원 복원 중단

서울시, 도봉사 명문 등 고려

국보급 불교문화재가 대량 출토된 도봉서원의 복원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서울시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도봉서원 복원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용역을 통해 지난 8월 21일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금강저와 금강령 등 77점에 달하는 불교문화재를 발견한 바 있다. 또 도봉서원이 영국사 기반을 재활용했음이 드러났다.

조계종은 8월 27일 문화재청, 서울시 등에 도봉서원 복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서울시는 회의를 열고 복원사업을 부결시켰다.

서울시는 이어 향후 도봉서원 복원사업 재개시 영국사 및 문화재 출토 당시 유물에 명시된 도봉사에 대한 관계도 조명을 밝힌 것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는 "도봉서원보다 국보급 문화재가 발굴된 영국사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복원사업이 조선 초기 불교와 유교의 관계, 사찰터와 사원터의 관계 등을 밝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일제는 불국사를 왜 변화시켰나

## 국가기록원, 불국사 청운·백운교 설계도 원본 공개

국가기록원은 9월 23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근대 건축도면 아카이브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포럼에서 최근 복원한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실측도와 수선공사 변경설계도 원본을 일반에 공개했다.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는 일제 강점기에서 수선공사를 거쳤는데, 일제는 이 과정에서 실측도와 수선공사 설계도 등 도면을 작성했다. 공개된 도면들은 모두 1918년 만들어진 것으로, 수리 전 절의 평면도 열개를 보여주는 '경주군 불국사 경내 실측도'와 정면 열개도인 '불국사 석원급계단 실측도', 수리를 위해 만든 설계 도면인 '불국사 수선공사 설계도'와 이를 수정한 '불국사 수선공사 변경 설계도'다.

이 도면들은 불국사가 보수 과정에서 원래 모습과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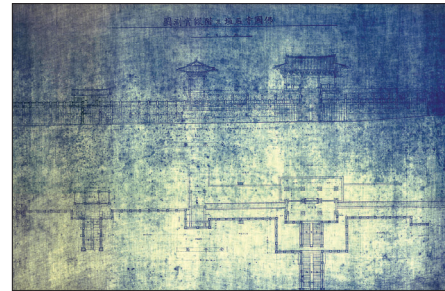
일제는 보수 전 불국사 정면 하단 석축의 돌난간 기둥과 청운교 백운교 등의 돌계단 난간 등을 없애려 했으나 수정 설계도를 보

여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일제는 보수 전 불국사 정면 하단 석축의 돌난간 기둥과 청운교 백운교 등의 돌계단 난간 등을 없애려 했으나 수정 설계도를 보

**일제강점기 수선공사, 실측도면등 본 모습 유추...보존 자료 의미 커**  
**인터넷 아카이브 통해 공유 가능**  
**근대문화재 183건 기록화자료 포함**

김양희 국가기록원 연구관은 "실측도와 수선공사 변경설계도는 불국사 수리계획, 수리방식 등 일제의 불국사 사지(寺地)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불국사 실측도와 수선공사 변경설계도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불국사 관련 근대 건축도면 총 36점 가운데 일부로 대한의원(사적 248호), 경성제국대학(사적 278호), 조선총독부, 경성 광화문



변경 전 불국사 석원급 계단 실측도(사진 왼쪽)와 일제시대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전경(사진 오른쪽). 불국사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변경 전 불국사 석원급 계단 실측도(사진 왼쪽)와 일제시대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전경(사진 오른쪽). 불국사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통 관유지 일람도 등 건축도면 원본 총 10점도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다.

포럼에서는 전봉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의 '근대 건축도면 아카이브 현황과 국가기록원 소장자료의 의미'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이규철 동경대 연구원의 '근대적인 측량기술의 도입과 건축도면의 제작', 주상훈 건축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의 '국가기록원 소장 건축도면을 통해 본 1910년대 관립시설' 등이 발표됐다.

주상훈 건축문화유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근대 건축과 근대의 보수공사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는 연구자료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1910년대 전격적인 건축상황을 보여주는 국가기록원의 건축도면 가치는 매우 크며, 이를 통해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도 문화재청 시설사무관은 '근대 건축분과에 비해 연구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성과가 취약한 분야인 근대건축 분야에 대한 기록화 자료는 그 부족한 공백을 채우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도면자료는 그 원형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기록화 사업은 물론이고, 문화재 수리시에 사용하기 위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제14교구 범어사도 교구신도회 결성

26일 만장일치로 추진 결의

조계종 제14교구 부산 범어사는 9월 26일 경내에서 제14교구신도회 창립을 위한 교구신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대사, 불정사, 원각사, 장안사, 수곡선원, 반야선원 등 제14교구 수말사 사찰 20여개의 주지 스님을 비롯해 각 사찰 신도회장 및 임원, 종무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포교부장 송목 스님, 신도국장 탁산 스님, 범어사 총무국장 우정 스님을 비롯한 본사 주요소임의 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14교구는 만장일치로 교구신도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빠른 시일 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교구신도회의 창립 후에는 대내외 종단과 지역사회의 현안 등 공동의제를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앙신도회는 "오는 10월 1일 제5교구 범어사도 8일 제8교구 직지사 등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미결성 교구신도회의 원인을 파악하고 창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이나 기자**



나란다 축제가 9월 20일 동국대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3000여 대중에게 자정면 공양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 세대·국경 초월한 불교 교리 한마당

조계종 포교원·은정재단, 9월 20일 제6회 나란다축제

불교계 대표 문화축제 중 하나인 나란다 축제가 9월 20일 동국대 일원에서 펼쳐졌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3000여명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K댄스 경연대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전통문화체험마당, 회향마당 등 풍성한 프로그램은 물론 참가자 전원에게 짜장면 보

시 가 이루어져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외국인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원어민 교사와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1:1 결연을 맺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300여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330명이 참가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외국인 부문 우승자는 몽고에서 온 폭피콤 씨(부산 동아대 교환학생)로 캄보디아 프놈

펜 로얄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다. 폭피콤 씨는 "그냥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뜻밖에 일등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불교 신자로 불교 상식을 묻는 문제가 많아 유리했던 거 같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폭피콤 씨는 이날 대상으로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일반인 부문은 조계사 박선호 씨(상금 300만원), 초등부는 한국불교대관음사찰국도량 정승현 학생(200만원)에게 각각 돌아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세계가 주목한 韓 템플스테이의 위상

문화사업단, 9월 18~20일 순례 국제회의의 참가

한국 대표 전통문화관광 콘텐츠인 템플스테이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조명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UN WTO 관광과 성지순례 국제회의(First UN WTO International Congress on Tourism and Pilgrimages)'에 종교관광의 우수 사례로 참가, 스페인 산티아고 델라 콤포스텔라에서 템플스테이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WTO와 스페인 관광청의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국제회의는 관광 분야에서 종교가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관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종교 지도자, 관광업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성지 순례 관광과 문화유산, 자연 환경, 순례 관광의 지속성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9월 18~20일 'UN WTO 관광과 성지순례 국제회의'에 종교관광의 우수 사례로 참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명법 스님이 한국불교 템플스테이의 우수성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우용진 UN WTO 사무총장 특별 자문위원은 "종교 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초를 밝히고 문화와 관광, 종교계의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9일 <순례관광의 지속성>세션에서 종교 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역사 및 운영현황, 프로그램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명법 스님은 "전통사찰에 머물며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적

인 전통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했다"고 템플스테이를 소개했다. 또한 정신적 치유와 사회 통합 기여 부문에 관한 템플스테이의 성과를 공유하여 호평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템플스테이의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박사는 "현대인들에게 종교적 위안이 더욱 절실해진 만큼, 국가지원정책으로 체계화된 우리의 템플스테이가 국제 사회에서 종교관광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평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를 계기로 템플스테이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향후 템플스테이 시즌2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논의의 장에 참석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윤연희는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연세문화상 시 부문을 수상했다. 2002년부터 불교계에서 일하고 있다. '정영섭'이란 본명으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길 위의 철학』을 비롯해 5권의 책을 냈다. 그의 명철한 글쓰기는 "간결하고 명쾌하며 재미있고 유익하다. 날카롭기가 칼날 같고 번쩍거리기가 번갯불 같다."는 호평을 들으며 마니아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 불행하다면  
아직 달마의 실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 없는 시대에 참사람이 되고자 한  
홍일 대사의 사유록

**그저 인간이 되고 싶었다**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남산윤종의 11대 조사 홍일 대사의 사유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다움'을 떠올려본다

총일 대사 저 | 전영숙 옮김 | 14,000원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윤연 저 | 15,000원

달마의 인생 공략집

끝까지  
가본 사람,  
달마의 인생 공략집

::  
::  
::

누구나 달마를 알지만 아무도 달마를 모른다.  
환영과 풍문으로만 떠돌던 전설 속의 달마는 있어라!  
지금 여기, 달마의 독한 위로가 시작된다!

살아도 살아도 허기진 삶,  
누구보다 고독하고 불행했던 달마도 무심無心으로  
삶을 관통했기에 목욕이 살아낼 수 있었다.  
우리 이대로 쓸쓸해도 괜찮다, 어찌된 달마처럼.

붓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다!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시작하여 새로운 엔딩을 맞이하는 길을 안내하는 책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미크 엘스테인 저 | 이상용 옮김 | 18,000원